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Saudi Aramco unit launches hunt to charter up to six chemical tanker newbuildings

사우디 Aramco 산하의 Saudi Basic Industries(Sabic)가 최대 6척의 케미컬탱커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현재 Sabic은 45,000~50,000DWT급 IMO type2 기준 증축 탱커를 원하고 있으며, 5년 추가 연장 옵션을 포함한 5년 용선 계약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됨.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Times Shipbuilding(중국) and Guangzhou Shipyard International(중국)이 건조계약을 따내기 위해 입찰 진행 중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 VLCC newbuilding prices at lowest mark for more than 30 years

노르웨이의 투자은행 Cleaves Securities에 따르면, 초대형유조선(VLCC)의 신조선가격이 1980년대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보도됨. 현재 대표 조선사들의 VLCC 건조가격은 8,700만달러 수준으로 지난 2월대비 -5% 하락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한국, 2개월 연속 수주 1위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Clarksons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86만CGT(36척)로 한국이 63만CGT(23척, 73%)를 수주하며 2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중국은 21만CGT(12척, 24%), 베트남 2만CGT(1척, 3%)를 수주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Total eyes wind propulsion for next-generation LNG carriers

프랑스의 슈퍼 메이저 Total사는 차세대 LNG선에 풍력추진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됨. WASP(Wind Assisted Ship Propulsion) 솔루션을 선박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국내 빅3 조선사와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 Daewoo dishes out key equipment award for two Russia-bound LNG floaters

대우조선해양이 Novatek으로부터 수주받은 LNG Barge 2척 공사 진행을 위해 Seasystems에 계류장비(mooring equipment) 납품 계약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대우조선해양은 Seasystems로부터 72개의 hull bracket과 chain stopper를 납품받아 2척의 FSU를 건조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Upstream)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현대중공업 힘 보탠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형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보도됨. 한국석유공사는 한국동서발전과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인 에퀴노르사와 공동으로 울산 남동쪽 58km 해상에서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200MW 규모의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짐. 한국석유공사는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에 국내 기술과 국산부품 사용을 높이기 위해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포스코, 두산중공업, LS전선 등 4개 국내 기업과도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파이낸셜뉴스)